

박대통령, 삼성 합병·바이오로직스 상장 직접 지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 속기소)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 대장정'의 결과를 6일 오후 국민 앞에 내놓았다.

주요 혐의 및 의혹	확인	확인 불확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부정한 청탁의 대가)	○	
박 대통령,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특혜성 결정 지시	○	
문화예술계 지원비세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 관련 혐의	○	
세월호 침몰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 관련 '세월호 7시간' 의혹	×	
주사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 등 청와대 출입 '세월호 7시간'과 연계없이 비선 의료인인 박 대통령 진료 및 특혜	○	
최순실 일가의 최대 수조원대 재산 부정 축적 의혹	×	
이화여대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 대학(PRIIME) 사업 신청 관련 박 대통령 및 최순실 관련 여부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직권남용 의혹	×	
민주노조 '유리창' 설치 및 운영 정황에 대해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	
청와대 및 진영계의 여비이연할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	
확인 불가: 조사 기간 부패 등의 혐의로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내용은 확인된 바 없는 의혹의 경우		×

삼성 뇌물 수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주주인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2800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중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

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의무처분 주식 수 감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메르스 사태 이후 삼성서울병원 제재 경감 등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세월호 전날 저녁부터 당일 10시까지 박대통령 행적 확인 안돼

미완의 '세월호 7시간'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성태일 외과 김영재 원장, '주사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은 밝혀졌다.

특검은 세간의 의혹과 달리 김영재씨나 자문의 김상만씨 등 '비선 의사'들은 사고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모두 기존 주장대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

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파부와 자문의인 정기양 연세대 교수도 학술대회 참석차 광주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이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무엇을 했는지,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왼쪽 턱밑에 2014년 4월 15일 국무회의 사진이 없던 주사 자국이 2014년 4월 17일과 21일 사진에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사실조사를 신청한 결과 "실을 삽입하는 수술(리프팅) 후 17일 드레싱을 하고, 화장을 가린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였고, 21일에는 드레싱을 제거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며 "시술을 했다면 15일 이후 17일 이전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특검은 '세월호 7시간'과 관계없이 청와대에 각종 '비선 의료인'들이 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의사 김영재씨, 김상만씨 외에 '주사 아줌마' 2명, '기 치료 아줌마', '운동치료 왕실리 원장' 등이 광범위한 기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

노태강·문체부 1급 사직 강요...청와대 반대 단체 지원 차단

블랙리스트 박대통령 혐의

특검은 보고서에서 "노태강(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등,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언급했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이념적 정책 방향의 변화가 아닌 '정파적 이익'에 따른 탄압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예작품의 성격을 떠나 정부·청와대 입장과 다른 견해를 사실상 '반민주' 세력으로 보고 지원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대표적인 예로 순수문예지 '문학동네'를 들었다. 문학동네는 진보나 좌파라고 분류된 적이 없지만, 세월호 책을 발간한 이후 '좌편향' 출판사로 낙인 찍혔다는 것이다.

이런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돼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판단이다.

"기간 짧고 수사대상 비협조로 절반의 성과"

박영수 특검 소회... "검찰 수사 기대, 공소 유지 최선"

90일 간의 '대장정'을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국민 성원에 대한 고마움과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데 대한 송구함을 동시에 나타냈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 대치동 사무실에서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결과 대국민 보고에 나와 소회를 밝혔다.

박 특검은 "국민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 특검팀 전원이 국민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미완의 수사'라며 스스로 다소 아까운 평가를 내렸다. 그는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가 절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된 데 대한 안타까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된 데 대한 아쉬움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는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을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 등으로 규정지었다.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수사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박 특검은 "이제 남은 국민적 소망을 검찰로 되돌리겠다"며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추가 자료들을 통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에서 진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 수사 기간 국민여러분께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최태민 일가 재산 추적...상속 과정 못밝혀

최순실 부정축재 의혹

특검팀은 최태민 일가 재산이 2730억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재산이 230억원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 특검은 6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망자 6명을 포함한 최태민 일가 70명의 재산을 석 달간 추적한 끝에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원에 달하는 토지·건물 178개를 보유하고 예금 등 금융

자산도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언니인 최순천씨의 재산이 1600억 원대로 가장 많으며, 최씨가 직접 소유한 토지와 건물 36개는 거래 신고가 기준 228억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특검은 시간 부족의 한계로 최태민 일가가 이 같은 막대한 재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적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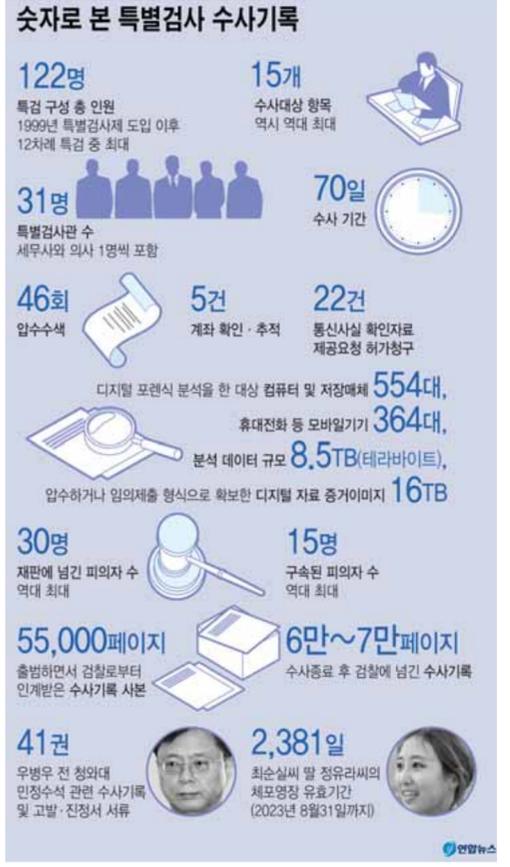
최씨의 삼성 뇌물 액수가 430억원대에 이르는 만큼,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최씨는 빈털터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이대에 특혜성 지원 정황 포착

이화여대 부정입학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에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근 전 입학처장 등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교육부가 이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 대학(PRIIME) 사업과 관련해 애초 상명대 본교와 분교가 선정돼야 했지만 청와대 지시로 상명대 분교만 선정되고 후순위였던 이대가 선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특검은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은 포착했지만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구속 피의자 13명, 압수수색 46회

특검 각종 기록 갈아치워...수사 인력 역대 최대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과 광범위한 의혹 제기에도 걸맞게 많은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검 구성 인원은 총 122명으로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출범한 12차례 특검 중 최대로 기록됐다. 수사대상 항목 역시 15개로 역대 특검 중 최대였다.

특검이 채용한 특별검사관 31명 중에는 세무사와 의사도 1명씩 포함됐다. 20일간 준비를 거친 특검은 70일의 수사 기간 압수수색 46회, 계좌 확인·추적 5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22건을 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한 대상은 컴퓨터 및 저장매체가 554대,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가 364대였다. 포렌식 분석 대상이 된 데이터 규모만 8.5TB(테라바이트·1TB는 1000GB)였다. 특검이 압수하거나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디지털 자료 증거이미지는 총 16TB에 달했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30명으로 역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다. 구속된 피의자도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2월 1일 특검이 출법하면서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 사본은 약 5만5000쪽에 달했다. 특검이 수사종료 후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은 이보다 많은 6만~7만여쪽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기록 및 고발·진정서 서류만 41권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재발부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2023년 8월 31일까지로 명시됐다. 영장 유효기간이 무려 2381일이나 되는 셈이다.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이달의 추천 여행지

HAWAII

Aloha~ 하와이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062)228-1199

지상낙원 하와이로 떠나는 여행!

하나Free HHA204_A
항공 + 호텔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6/7일

총 상품가격 1,602,200원~
가이드 + 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없음

3월 3일~6월 30일 매주 목,금,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하나Pack 캐주얼 HHP214
인솔자 동반
일급 와이키키 리조트 6일

총 상품가격 2,357,200원~
가이드 + 기사경비 \$60
선택경비 있음

3월 1일~4월 21일 매주 화,수,목,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하나허니문 캐주얼 HHW200
관광 + 자유
준특급 하얏트 플레이스 6/7/8일

총 상품가격 2,047,200원~
가이드 + 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5월 1일~9월 30일 매주 토,일,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광주일보 고객만을 위한 혜택

패키지 예약자 : 매직 칵테일 쇼 포함 (US\$ 75 상당)
허니문 예약자 : 스타 오브 호놀룰루 선셋 디너 크루즈 1STAR 티켓 증정 (30만원 상당)

제공조건 : 예약일 2월 13일 ~ 3월 9일까지 선착순 100명 한정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용) 유틸리티요금, 공항이용료, 전정보유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틸리티요금) 유틸리티요금: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내용) 알뜰여행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정된 내용은 알뜰여행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장이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양서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 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명원 보증보험 22억 (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틸리티요금과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ur.com)를 참조해 주세.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여행 유의 2.여행 자제 3.참수 권고 4.여행 금지